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불수능 OUT’ 캠페인 서명자 명단 대법원 제출 현장 스케치보도(2021.2.16.)

## 홍민정 공동대표는 왜 로펌에 갔을까?

설날 연휴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2월 2일 오전, 매서운 추위를 뚫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홍민정 공동대표가 법무법인 에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떠선 일이고”



아침 댓바람부터 시민단체 대표가 로펌을 찾은 이유는 바로 대법원에 참고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핵심증거인 ‘2019학년도

수능 출제 과정 중 1, 2차 검토위원단이 검토한 문항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해버렸죠.

2019학년도 수능 문항을 본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들은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라면 분명 검토위원단이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고 그 기록이 문항보고서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은 검토보고서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것마저 기각했습니다.

“이젠 모든 걸 다시 시작해... (중략) 지금 이렇게 지금 멈출 수는 없어”

그렇다고 멈출 사교육걱정이 아닙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수능 OUT’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 출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으로 내몰고 학교 교육과정을 신뢰한 학생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좌절감과 배신감을 초래하는 불수능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민 서명 캠페인인데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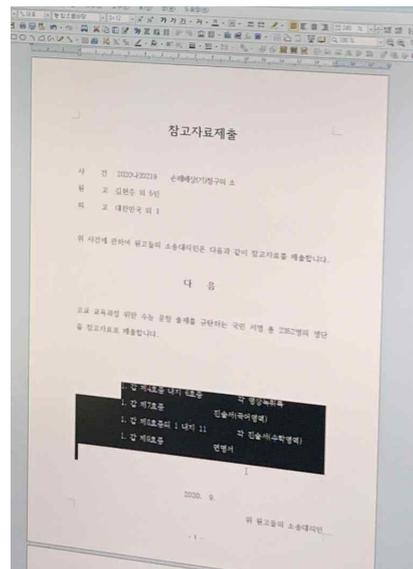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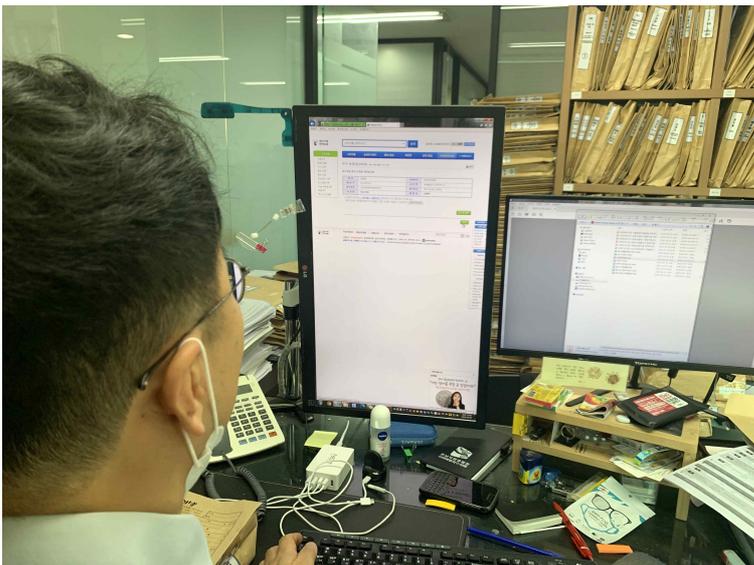


자, 여기서 왜 법개정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수능의 교육과정 준수를 규율하는 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수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선행교육 규제법에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준수하지 않은 평가원의 출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말해 수능을 선행교육 규제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역대급 불수능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빙빙 돌았는데요. 그렇다면 홍민정 공동대표는 로펌에 왜 갔을까요?



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불수능 아웃 캠페인을 통해 수능의 교육과정 준수를 염원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뜻을 대법원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이라 박스에 서명지 넣거나 서명자 명단을 출력해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대법원에 찾아가 민원실에 전달하는 줄 알았는데요.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전자시스템으로 클릭 한 번에... 끝! 전자 제출은 소송 담당 변호사인 바로 위의 대문짝 사진에 등장하신 배정호 변호사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짹짹!!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위반 출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평가는 배운만큼 배운데에서 출제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사교육을 통해 킬러문항 풀이를 훈련한 학

생들에게만 유리한 시험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불공정한 평가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용기를 내어준 원고 분들 덕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이 현장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로 분석단을 꾸려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학년도 수능 수학의 교육과정 위반 문항은 12개였지만 2021학년도에는 2문항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에도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틀 뒤인 2월 4일 사교육걱정은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선행교육 규제법에 수능을 포함하는 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의원실에서 수능의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여부는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에 수능의 선행교육규제법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꼭 법이 개정되어서 배운 데에서 배운 만큼 출제하는 수능시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교육걱정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분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서명 서명, 클릭 클릭! 곧 2탄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 ‘불수능 OUT’ 캠페인 서명하기: <https://noworry.kr/foulexam>

2021. 2. 1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